

□ 해외 출장 보고

미국에서의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를 다녀와서

윤 용 선

(국립국어연구원 연구원)

1. 서 론

필자는 지난 7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간 한철모 연구 3부장과 함께 미국에서의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만터레이, 일본 동경의 한국어 교육과 연구 관계 기관 및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처음 나가 보는 해외 여행이어서 볼 것도 많고 느낀 점도 많으나 이러한 글을 쓰는 목적이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차후의 유사한 성격의 사업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개인적 소감은 가급적 지양하고 연구 활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기술해 나가고자 한다.

2. 준비와 일정

필자가 이 사업을 맡게 된 것은 지난 5월부터였다. '미국에서의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라는 막연한 사업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딪힌 문제였다. 빠듯한 예산, 그로 인한 짧은 일정에 사업 목적에 가장 근접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자들의 경험을 빌어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위의 조언에 따라 초점을 한국어 교육 기관에 맞추었다. 다행히 국내에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상황에 대한 글들이 몇 편 있었고, 마침 재외 한국어 교사 연수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참가한 교사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방문 기관과 인사를 정하고 일정을 구상하여 출장 계획을 겨우 마련했으나 다음 부딪친 문제는 예산 문제였다. 계획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3~14일이 필요했는데 예산은 10일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예산에 맞추어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 여유가 없는

빠듯한 일정이 되고 말았다. 젊은 혈기에 이 정도 일정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강행하였으나, 후에 이를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더구나 현지의 사정을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진 계획이어서 그 어려움은 더 컸다. 후에 이러한 사업을 맡는 사람들은 현지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여(특히 현지 사람들의 개별적인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현지 우리 기관의 협조를 얻는 것이 좋다.) 여유 있는 일정을 세우기를 조언하고 싶다. 여권과 비자 신청에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미국 비자 신청은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예정된 시간에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포 공항을 출발한 것은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였다. 내가 맡고 가는 일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케네디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출발한 날과 같은 오전 11시였다. 처음부터 뽀뽀하게 짜인 일정이다 보니 도착하면서 바로 일을 시작하여야만 했다. 뉴욕 지구 한국 학교 협의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허병렬 여사를 만난 것도 바로 도착한 날이었다. 출발하기 전 국내에 연수차 와 있는 미국 내 한국 학교 교사들로부터 반드시 찾아보아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머릿속에는 여장부를 그리고 있었는데, 막상 대하고 보니 5척 단구의 우리 나라 어디 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어서 놀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도 소녀 같은 앳된 목소리를 가진 그 분이 지금 70세라는 점이었고 또 그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으로 미국 내의 한국어 교육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였다. 우리말과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이 그 분을 늙지 않게 하였구나 생각했다. 늦은 점심을 같이 하며 미국에 간 목적과 우리의 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국어를 전공하며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나 자신도 미처 느끼지 못했던 우리말에 대한 애정이 허병렬 여사의 말마다 스며 있는 듯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종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여사는 20여 년 간 재미 동포 아동들의 한국어 교육에 종사해 왔으며 현재 뉴욕 한국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풍부한 교육 경험에 근거한 해외 동포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들은 비록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했지만 절실한 것이었다. 여사의 자상한 조언들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윤곽을 잡을 수 있게 했다.

다음날(현지 일자 7월 9일) 허병렬 여사가 주동한 현지 한국어 교사들과의 모임을 가졌다. 현지 한국어 교육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문 규범에 대한 몇 가지 질의에 답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들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는 체계적이지 못했으나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였다. 말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다시금 되새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분들이었다.

7월 10일에는 자료 구입차 오전 일과를 보내고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하였다. 도착 시각은 비행기가 2시간 가량 연착하는 바람에 밤 11시, 바로 호텔에 들어 휴식을 가졌다.

7월 11일 아침 허병렬 씨가 소개해 준 분과 연락을 취해 보았다. 서부지역 한국학교 연합회의 김문희 씨였다. 다행히 연락이 닿아 저녁에 한국어 교사들과의 자리를 갖기로 약속하고 잠깐의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다. 저녁 모임에 참석한 분들은 뉴욕에서와는 달리 모두 젊은 분들이었다. 김문희 씨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는 한인 밀집 지역이어서 한국어에 대한 교민의 인식이나 사회적인 필요가 여타 지역보다는 절실하다고 했다. 학교 수나 학생 수가 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었고 학교의 교육 체제나 활동이 더욱 짜임새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한국학교 연합회에서는 1992년을 '한국어 교육의 해'로 선포하고 연수원을 설립하는 등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참석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뉴욕에서와 대동소이한 것이었으나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다. 우리 연구원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바라는 것도 많았다. 참석자들이 말한 것이 모두 필요한 것이었음에도 “선뜻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7월 12일에는 교회의 한글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현장을 돌아 보았다.(미국에서 한글 학교는 교회 부설 등의 학교를 지칭하고, 한국 학교는 독립되어 운영하는 학교를 지칭한다. 한국 학교가 강의 시간이나 교과 과정이 좀더 체계적이다.) 교회 부설의 조그만 학교였는데도 꽤나 짜임새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여기서 잠시 현지 젊은이들의 대화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 중에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국어도 곧잘 하였다. 미국에는 성장 환경에 따라 한국어 습득 정도가 천차 만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가지 낭패를 본 일은 만터레이까지 가는 일이었다. 대략 차로 5~6 시간 걸리는 거리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현지에 가 보니 차편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12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비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경비가 600불이나 들어갔다. 다행히 여비가 남은 것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자칫 큰 낭패를 볼 뻔하였다. 해외 출장을 갈 때에는 현지 조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7월 13일 아침 국방외국어대학교(DLI)에서 호텔로 차를 보내 왔다. 차를 타고 가는 주위 풍경은 세계 제일의 휴양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아

름다웠다. 출장이 아니고 관광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DLI는 군인들의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서 2년 정도 특정 언어만 배우게 되어 있었다. 군대 기관인 만큼 미국 내의 한국어 교육 기관 중에 가장 치밀하리라는 생각을 가졌었으나, 군대 조직이 갖는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한계가 없지 않아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하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었다. 여기서 한국어과는 가장 규모가 큰 과의 하나였다. 한국어과장(Charles Cole) 밑에 네 개의 한국어 과정이 있으며 학생 수는 400여 명, 교사 수는 80여 명(대부분 한국인) 정도였다. 레벨 2(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표현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수준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2년 안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수준에 도달하는 학생은 10% 미만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한국어가 배우기 어렵고 가르치기 어려운 언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한국어는 일본어와 함께 배우기 어렵다는 언어 그룹인 D그룹에 속해 있었다.) 앞서 한국 학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었다면 여기는 성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이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조금 달랐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주된 관심사로 전자는 문화적인 차이의 극복이 우선되었다면 후자는 언어적인 차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것이었다. 우리 연구원 의 입장에서 DLI와 같은 한국어 교육 기관은 그들의 교육 경험을 통해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우리는 한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7월14일 아침 만터레이를 출발하여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후 바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동경으로 출발하였다. 실제 비행 시간은 12시간이었지만 갈 때와는 달리 시간을 따라오는 것이어서 하루를 비행기에서 소비하고 나리타 공항에 내린 것은 7월 15일 오후 2시였다. 시차 적응 문제 때문인지 피곤하여 바로 숙소를 잡아 휴식에 들어갔다.

7월 16일 일본 국립국어연구소를 방문했다. 마침 우리를 안내하기로 한 生越直樹 씨는 한국에 유학 와 있을 때 안면이 있던 사람이어서 한결 부담감이 덜했다. 일본 국어연구소의 일본어 교육 연구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듣고 영상 교재를 직접 제작하는 부서에 가 제작에 따른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들었다. 우리가 영상 교재를 제작함에 있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점, 즉 예산의 확보, 적절한 인력의 수급을 어떻게 해결해 왔으며 사업 추진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일본 역시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겪는 것과 같은 문제들은 갖고 있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양상을 달리할 수 있으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라는 점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었다.

3. 한국어 교육의 문제와 대책

미국의 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 같을 뿐 여타 사회 환경은 우리와 판이하다. 특히 언어의 밀바탕이랄 수 있는 문화가 매우 다르다. 이민 1세대이야 한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하는 면이 많으나 문제는 이민 2세대이다. 그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문화도 미국의 그것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한국에서의 국어 교육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우선 교육 목표와 필요성을 분명히 하여 그에 대한 현지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미국에서 한국어의 위치는 소수 민족의 언어일 뿐, 실제 사회 생활에 도움을 주는 언어가 아니다. 일본어나 중국어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으나 한국어는 실제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중 언어교육의 하나로 정식 교육 과정에 들어 있다고는 해도 그것을 시행하는 지역은 미국 내의 일부일 뿐이다. 동포 사회에서도 젊은 계층은 영어가 의사 소통의 주요 수단인 점을 보아도 미국에서의 한국어의 위치를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동기 부여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한국 학교 교사들이나 DLI의 교수들이 겪는 제일 큰 문제가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동포 사회를 미국 사회의 별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현지 교사들의 지적처럼 한국어 교육은 우리와의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민족적 일체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적절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높아 한결 교육하기 쉽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에는 동포 사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계층이고 동포들의 민족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한국어 학습 목표를 정하고 또 그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할 때는 이런 현지의 차이를 반영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받을 사람들이 동포나 외국인이나, 그가 속한 사회 여건은 어떠한가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현지 교사들이 제기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교재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재들은 교육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내용면에서 실제 교육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앞서 말한 여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서의 교육 여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아동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나이와는 비례하지 않는다. 나이가 어려도 부모들이 열의가 있어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자주 접한 학생들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반면, 나이가 많더라도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후자를 가르칠 경우 한국어 학습 단계는 초보이나 내용은 그 나이에 걸맞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기의 학생에게 7~8세 어린이에게 맞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교재들은 언어 능력과 나이가 비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국에서의 많은 한국 학교에서는 기존 교재를 현지 사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재들이 현지 사정에 적합하기는 하나 체제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된다. 교재들이 국어 문법이나 어문 규범에 어긋난 예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될 점이 없지 않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사용될 모든 교재를 모두 만들어 제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어의 특성은 어떠한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고, 교육 단계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등에 대한 자료와 지침서를 현지 한국어 교육 담당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지 교사들이 스스로 사용할 교재를 직접 만들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하나로 교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지 교사들의 한국어 교육에 임하는 열의는 대단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일반 언어학적 지식, 국어 문법,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 정도가 피상적인 수준이다. 동포 사회에 있어 한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언어를 통해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라 하기 어렵지만 바른 언어 교육, 효과적인 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다행히 교사들의 교육 열의와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교재의 부족은 학생들만이 아니고 교사들에게도 문제가 된다. 교사들이 한국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해도 적당한 교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 그 내용이 책별로 상이하여 혼란을 가중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된 용어, 체제에 따른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함은 물론 이를 지속적인

연수 교육을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도 지적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과서 위주의 평면적인 교육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영상 매체를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허병렬 여사가 말했듯이 만화를 이용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히게 한다면 저학년 아동들에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스로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여 찾아보게 한다면 청소년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DLI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재를 개발하려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인 도움을 주고, 그 결과물과 경험을 활용하는 방식과 같이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문제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많은 단체들이 한국어 교재 개발이나 관련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활동이 각기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육 내용의 통일을 기하기 어렵고 노력의 낭비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학문 활동이나 민간 활동에 있어 국가 기관이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교육의 문제는 약간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교육 제도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교육의 공공성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의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 활동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전반을 파악하여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와 분위기 마련은 지금부터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 학교 교사들의 교재 제작 참여, 현지 한국어 교육 기관의 연구 성과 활용 등이 다 이 같은 차원의 일이 될 것이다.

이런 협조 분위기의 조성과 더불어 우리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기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지 언어 실태나 사회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 기존 한국어 교육 효과의 점검, 한국어와 해당 언어간의 대조 언어학적 연구, 한국어의 기초 어휘 조사, 기본 구문 연구 등과 같은 기초 연구 활동이 뒷받침될 때 타당성 있는 교육 목표의 설정, 효과적인 교재 제작 등의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에 집착하여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하다. 일본 국어연구소의 활동을 보고 막연히 느낀 것은 그들의 일련의 활동이 즉흥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커다란 흐름에 따라 계획되고 제어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점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